

대림절(待臨節)

12/01/2024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인 그레고리력은 1월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대림절이 주로 12월에 시작하니 교회력은 그레고리력보다 한 달 먼저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1년 주기로 만들어서 지키는 달력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 등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든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절기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절기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오래전부터 지켜오다 11세기에 와서 오늘날처럼 성탄절 전 4주로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간 대림절은 지속됩니다. 대림절은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Adventus>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Adventus>의 뜻은 “오심, 강림하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말로 “강림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림절, 대강절”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로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기마다 색상이 정해져 있는데 대림절의 고유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별 의미 없이 성탄절 전 절기라고만 여기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참 의미는 초림의 자리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초림 예수가 오시기 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믿으며 재림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대림절을 거룩한 절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기다림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농부의 기다림 같은 적극적인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경작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며 마침내 추수의 계절을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림절은 새해를 주님의 뜻대로 성실히 살며 언제 오시든 재림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결심하는 절기이며, 교회력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